



0III-1

# EBP를 이용한 하악 무치악 환자의 치료계획

현기봉\*, 신상완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치과보철과

EBP(Evidence-Based Parctive)는 치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. 최근들어 이전보다 정확한 임상적 기술과 판단이 요구되고 있으며, 치과의사들은 치료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상의 근거(best evidence)를 찾기 위해 여전히 문헌검색을 계속하고 있다.

본 발표에서는 EBP의 개념, 치과보철학 분야에서 EBP의 필요성, EBP로의 접근 방법을 알아보고, 하나의 예로서 실제 치과 보철임상에서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를 위한 치료계획을 결정할 때 필요한 문헌검색 방법과, 검색된 결과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.

그러나, 치과 영역에서는 대부분 단지 미약한 증례 보고성 연구 디자인에만 기초를 둔 치료 방법들을 근거(evidence)로 내세우고 있으며, 이는 선택한 치료방법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기 어렵고 치료의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
이러한 이유로 최근 확실한 근거를 가지는 문헌을 효율적으로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었으며,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다. 또한, 환자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독자들의 분별력이 향상됨에 따라 저자들도 보다 철저한 연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.